



담임목사 | 안영수 교육목사 | 임현철
시무 장로 | 최광희 양재선 김유자 심현태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Fort Wayne 300 W. Wayne St. Fort Wayne IN 46802
www.firstpresfortwayne.org

2023년 11월 26일
오전 11시

인도 | 안영수 목사
반주 | 안병국 청년

나아옴 [Approach]

전 주 [The Prelude] ————— 반 주 자

개회찬송 [Opening Hymn] —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함께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 다 같 이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 인 도 자

인도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One: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다같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All: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인도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One: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다같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All: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인도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One: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ll: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인도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One: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다같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All: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인도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On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think about such things.

다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All: Whatever you have learned or received or heard from me, or seen in me--put it into practice.

(다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All):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신앙고백 [Affirmation of Faith] _____ 다 같이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참회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_____ 다 같이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_____ 인도자

응답찬송 [Response Hymn] _____ 보혈을 지나 (By the Blood of the Lamb) _____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가네

By the blood of Jesus - into the arms of God By the blood of Jesus - into the arms of him

By the blood of Jesus - into His holy place Now I enter step by step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Precious blood - of my Jesus restore me, restore my spirit

Precious blood - of my Jesus restore me, restore my spirit

평화의 인사 [Sharing Peace] _____ 다 같이

증보기도와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_____ 안병국 청년

말씀 [The Word]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_____ 마태복음 5: 17-20 _____ 신아론 청년

설교 [The Sermon] _____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_____ 안영수 목사

응답 [THE THANKSGIVING]

찬양과 봉헌 [Offering and Offertory] _____ 봉헌위원 : 하이리 권사, 강문정 집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Sing Them Over Again to Me)

봉헌 기도 [Prayer of Dedication] _____ 인도자

결단의 찬양 [Doxology]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The Lord has shown me the way) —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The Lord has shown me the way, so I'm walking with Him now

He has embraced me when I came to Him with my broken heart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He is my righteousness, Jesus is His name

He is the Way that I take, Jesus is the Name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He alone knows the way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pure gold.

축도 및 폐회 [Benediction and Postlude]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God sent His Son)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Matthew 5: 17-20)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7 "Do not presume that I ca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did not come to abolish, but to fulfill. 18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the smallest letter or stroke of a letter sha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19 Therefore, whoever nullifie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sha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keeps and teaches them, h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20 "For I say to you that unless your righteousness far surpasse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알 리 는 말 씀 (Announcements)

1. 감사

- ◇ 추운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시고 여러모습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 예배 안내

- ◇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점심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초대되었으니 참석하여 주세요.
- ◇ 점심친교 이후 11월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 다음 주일(12월 3일) 안내

- ◇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Season of Advent)이 시작됩니다 (12/3-12/24)
- ◇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여 주세요.
- ◇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친교국 회의가 있습니다.

4. Stewardship 캠페인 안내

- ◇ 기존의 헌금작성서 양식으로는 내년 교회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작성서 양식으로 Stewardship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아직 작성서를 제출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십일조 금액을 기준으로 헌금작성서를 작성하시고, 헌금시간에 제출하여주시면 교회의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아래의 내용과 일정을 참조하여 주세요.

- ◇ 중보 기도 요청: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여주세요.
- ◇ 12월에 강단 꽃 봉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목회자에게 알려주세요.
- ◇ 교인동정: 심현태 장로 (한국 방문), 유정화 사모 (한국 방문)
- ◇ 11월 정기당회: 11월 28일 (화), 저녁 6시 30분

| 11,12월 예배 봉사자 | | | |
|---------------|-----|------|----------|
| 날짜 | 기도 | 성경봉독 | 촛불점화 |
| 12/3 | 최광희 | 박영일 | 박남세, 박재희 |
| 12/10 | 양재선 | 박재희 | 박남세, 박재희 |
| 12/17 | 김유자 | 류주현 | 박남세, 박재희 |
| 12/24 | 심현태 | 안지연 | 박남세, 박재희 |